



보도	2026.5.12.(화) 14:00	배포	2026.5.12.(화)	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유석호	(02-3145-6700)
	펀드심사1팀	담당자	팀 장	김세환	(02-3145-6724)
	소비자피해예방국	책임자	선임국장	임권순	(02-3145-8220)
	피해예방2팀	담당자	팀 장	심여희	(02-3145-8235)

「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」 추진 과제]

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하여 「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/F」를 출범합니다.

- ‘공모펀드 투자설명서 Blind Test’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「펀드 핵심위험 표준안」을 마련하겠습니다 -

주요 내용

- (배경)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.
 - 금융감독원은 펀드 설계·제조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(‘25.12.4.),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(‘25.12.21.)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‘펀드 핵심위험 표준안’ 마련을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
- (Blind Test 결과) ‘26.2~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한 결과,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,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 -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‘펀드 핵심위험 표준안’을 마련하겠습니다.
- (T/F 운영계획) ‘26.5~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‘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/F’를 출범(‘26.5.12.)합니다.
 - 동 T/F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업계가 참여하고, 향후 소비자보호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※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/F Kick-off 회의 개요



- ✓ 일시/장소 : ‘26.5.12.(화) 14:00~16:00, 금융투자협회
- ✓ 주요 참석자 :
 - (금융감독원)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1팀
 - (금융투자협회) 자산운용지원1부
 - (운용사) 삼성, 미래, 한국투자, KB, 신한, NH아문디, 이시스, 키움, 한화

I. 추진 배경

-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.
 - 우리원은 펀드 설계·제조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으로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 마련,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 의무화* 등을 발표('25.12.4.)하였으며,
 - * 운용사의 현지실사 자체점검 및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기재 등을 의무화하여 공서시식 개정 완료('26.4.1.)
 - 「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」('25.12.21.)에서도 일반인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.
- '26.2~3월 기간 중 우리원은 총 119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하였고,
 - 동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간명하게 안내하는 '펀드 핵심위험 표준안'을 마련하기 위한 「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/F」를 출범('26.5.12.)합니다.

II. Blind Test 실시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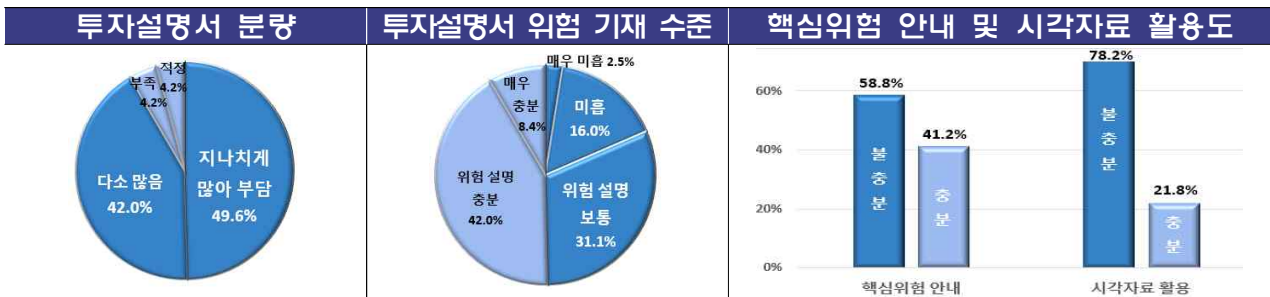
1 개요

- **(설문 기간·대상)** '26.2~3월 중 일반 금융소비자 총 119명*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.
 - * 일반 사무직 60.5%, 비영리단체 6.7%, 학생·주부 등 30.3%, 자영업·프리랜서 등 2.5%
- **(주요 내용)** 공모펀드* 투자설명서가 상품 및 위험 등을 이해하기 유용한지 여부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습니다.
 - * 8개 유형 펀드: 해외부동산, 주식, 채권, 목표전환, 커버드콜, 금현물, 국내리츠, 해외재간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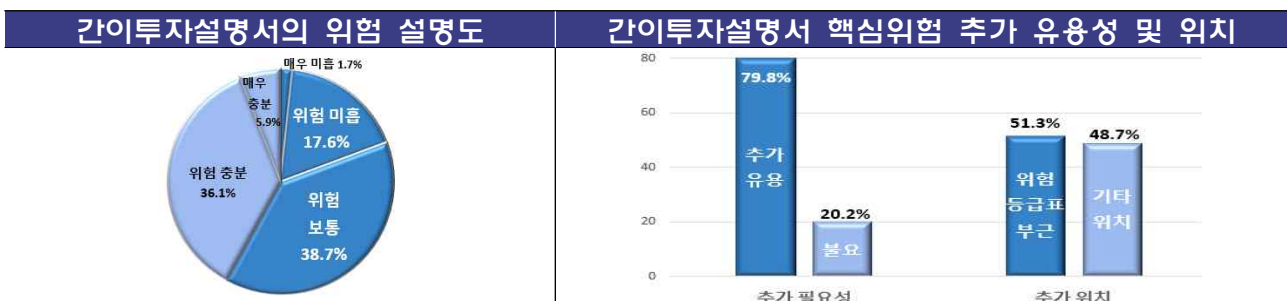
2

Blind Test 설문조사 결과 분석

- **(투자설명서 분량 등)** 전체 응답자의 70.6%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,
 - 투자설명서의 분량이 많으나(91.6%) 상품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(63.9%) 응답이 많았습니다.
- **(투자위험 기재 수준)** 약 절반의 응답자(49.6%)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,
 - 핵심 투자위험을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(58.8%) 및 시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(78.2%)도 있었습니다.



- **(간이투자설명서 관련 사항)** 응답자의 58.0%는 간이투자설명서가 핵심 투자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,
 - 핵심위험 정보를 추가하면 유용할 것이라는(79.8%) 응답이 많았습니다.
 - 응답자의 51.3%가 핵심위험 정보를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 중 투자위험 등급 표 부근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.
- **(기타)** 이 밖에 가장 중요한 위험은 '원본손실 위험'이라는 의견과
 - 금융 전문용어가 많고, 다수의 일반정보와 투자위험 정보가 단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핵심 중요사항 파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

Ⅲ. T/F 운영계획

- '26.5~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투자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'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/F'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 - 동 T/F에는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업체가 참여하며, '26.5.12. Kick-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,
 - T/F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서식에 반영하여 개정하겠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T/F 개선방안 예시안

-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'펀드 핵심위험 표준안' 마련
 -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을 안내하고,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·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

<간이투자설명서>		작성기준일: 2026년 8월 14일				
ABC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1호 [펀드코드 : CG000]						
현 행	투자 위험 등급 1등급 [매우 높은 위험]					이 요약정보는 'ABC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1호'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ABC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	1	2	3	4	5	
행	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핵심 투자위험 사항	
신 설	<p>1 (원본손실 위험) 이 펀드는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(동종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 : $\Delta 100\%$)</p> <p>2 (펀드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위험) 대출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융 기관이 대출원금 상환을 요구하여 부동산(담보자산)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 투자원금 손실 가능 * 공실 발생(xx% 이상), 임대수익 악화(순영업이익률 xx% 하회) 등</p> <p>3 (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) 임대료 수익 악화, 대출금리 상승 등의 경우 펀드 배당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(연배당수익률 0%)</p> <p>4 (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) 투자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투자 대상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</p>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